

독자와 함께

“스트레칭으로 근육·관절부터 풀어라”

봄철 운동할 때 주의할 점

등산·달리기 등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을

발목 염좌 방지 팁 관절염 등 만성질환 될 수도



봄기운이 돌면서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의욕만 앞세웠다가 오히려 몸을 상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은 물려가고 봄 기운이 서서히 들면서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의욕만 앞세웠다가 오히려 몸을 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음만 앞선 갑작스런 운동은 늘 화를 부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완연한 봄이 되면서 조기축구대회와 마리톤 경기, 등산대회가 봄물처럼 열리는데 특히 마리톤, 등산, 축구, 테니스 등 비교적 체력 소모가 많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 발목 염좌나 아킬레스 건강, 족저 근막염 등 발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흔히 발목을 빼었다고 하는 발목

염좌는 발목의 외측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져 생기는 것이다. 만약 등산도 중 발복을 빼끗했다면 귀가 후 즉시 냉찜질을 하고 되도록 빨리 병원에서 석고로 고정하는 등 움직임을 최소화 해야 증상도 나아지고 후유증도 막을 수 있다. 발목 인대는 일단 한번 늘어나면 발복이 불안정해져 반복적으로 부상하기 쉽다.

발목 염좌는 발목인대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출혈된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가벼운 부상이라는 생각에 계속 방치하기 쉽다. 그러나 발복 근육과 인대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발복이 약해지고 힘이 부실해져 가벼운 충격에도 균형을 잃고 습관적으로 빠르게 된다.

따라서 일단 심상되는 않은 염좌 상태라고 해도 치료 후 충분한 재활 운동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든 상태에서 발복을 자주 접질리면 관절염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하다.

▶이준영·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막염)이 생기기 쉽다.

일단 족저 근막에 손상이 생기면 잘 낫지 않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달리기를 할 때에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운동은 필수다. 특히 운동 이후에는 근육에 쌓인 젖산, 근육 파열 등으로 근육통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다리가 아프더라도 걷거나 계단 오르기 등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근육에 쌓인 젖산이 빨리 분해돼 회복이 빨라진다.

특히 운동 중 통증, 운동을 마친 뒤 2시간 이상 지속되는 통증, 자고 일어나서도 통증이 계속 될 때는 바로 운동 강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발꿈치에 심한 통증, 부종, 열감이 있으면 급성염증이 생긴 것을 의미하므로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준영·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클릭! 맛집



참숯에 직접 구워 고기가 탱글탱글...씹을수록 고소한 맛

이야! 이집 괜찮은 걸

■ 광주시 금동 '대구막창' 오돌뼈

광주시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인근의 대구막창(업주 서은화)는 꼬들꼬들 씹히는 고소한 오돌뼈 구이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다. 흔히 오돌뼈는 값싸 삽질살 오돌뼈를 주로 쓰는데, 이 집은 부드러운 꽈지 무릎 블링뼈만을 고집한다.

잘 손질한 뒤 다시 한 번 칼집을 넣기 때문에 뼈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씹힌다. 또 양간 짙은 맛이 강한 삼겹살 오돌뼈에 비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낸다.

서울 인근의 오돌뼈 집들이 매운 양념으로 괜에 뿐이 주는 것은 달리 이 집은 참숯에 직접 굽는다. 고기가 신선해 직화 구이를 해도 질기지 않기 때문이다.

양념도 담백하다. 화학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과, 배 등 20여 가지 야채와 재료를 같아 단맛을 낸다.

낸다. 이 양념에 고기를 하루 재워두기 때문에 육즙이 살아 있고 새 깊은 맛이 느껴진다.

특히 양념에 물을 전혀 넣지 않기 때문에 고기가 탱글탱글하게 잘 익는다. 오돌뼈에 살짝 불어 있는 지방을 모두 떼어내기 때문에 비릿한 맛이 전혀 없고 담백하다.

잘 익힌 오돌뼈는 대파, 고추, 양파, 생각과 과즙을 갈아 만든 양념에 살짝 찍어먹으면 더욱 맛있게 먹을 있다.

밀반찬으로 내주는 파전과 두부김치도 별미다. 또 담백하게 국물을 우린 닭 미역국도 먹을 만하다.

고기를 익히고 남은 숯에 양념비를 얹고 끓여 먹는 라면은 풍성한 식탁의 백미다. 라면은 청양고추와 콩나물을 넉넉하게 들어가 얼큰하다. 매일 밤 8시 이전에 주문하면 모든 음식을 반값만 받는다. 오돌뼈 8천원, 리면 2천원. 오후 4시 이후 영업. 문의 062-233-5176. /글· 사진=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광주천에 찾아온 '천연기념물' 수달, 시민으로서 뿌듯

다른 동·식물도 함께 서식할 수 있는 친수공간 됐으면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최근 광주 광주천에 멸종위기종 1급으로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다.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광주천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환경도 좋아졌다는 즐거이기 때문이다.

수달의 출현에 따라 광주시는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는 광주천 19km 구간에 보호안내관 등을 설치하고 서식 환경을 모니터링해 보호관찰하고 다른 야생동물도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결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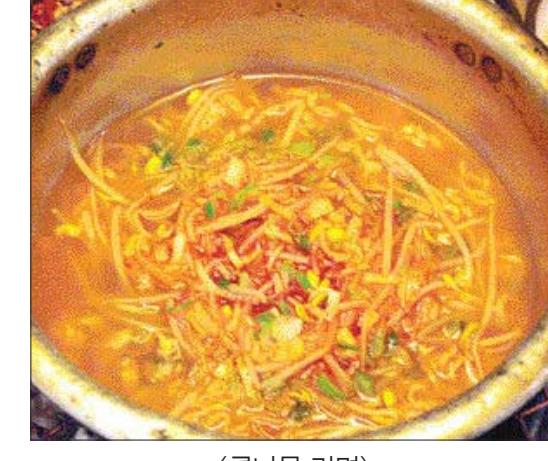
시는 광주천을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동구 선교동에서 서구 유촌동 양신강 합류지점까지 광주천 18.2km와 광주천 합류지점에서 동구 속신마을까지 중심사천 0.95km를 포함한 19.15km의 구간에 맑은 물이 흐르게 됐고, 시민들은 '친수공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성과로 광주천 종류의 수질이 과거 5등급이던 것이 3등급으로 개선됐다는 점이다. 깨끗한 물로 광주천의 수심이 깊어졌고, 이로 인해 다양한 수생 동식물들이 광주천으로 돌아오

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찾아온 '보물' 수달을 잘 보살피는 것이다. 경계심이 많은 수달의 특성상 서식권역과 행동권역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수달 서식지에 접근해 먹이를 주거나 물랭이를 투척하는 것은 삼가해야하며 야간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광주천에서 유유히 자백질을 하는 귀여운 수달의 모습을 자주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성열·광주 북구 임동



〈콩나물 라면〉

■ 찾기가는 길



효성공인증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 임야(농장·묘지적합)

나주·봉황

3,730평

(㎡당 10,600원)

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 가능)

빌딩(임대용·투자용)

- 토지 244평 건평 393평

(병원·사무실적합)

- 매가 19억

- 보증금 1억6천만 원83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

산증 재산리모델링

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급매물 즉시 증개

대인동삼일부동산

FAX 02-1772-7001~02-233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 구함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 확인 된 곳.

■ 위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매장면적 : 150-350평

■ 임대 및 매수 가능.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 가능

(주) 땅심

TEL : 010-3616-8698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 강영희
062-364-8700
H.P 010-4608-3700

로지(면/읍/리/마을) 5653/1710, 5천4백 3천7백

학산리 일자 22027/6683 6천

법남리 농면 전 481/2185 9천6백

법남리 농면 전 2020/611 1천6백

법남리 농면 전 2511/759 5천4백

법남리 농면 전 2511/759 5천4백